



월남 참전자 전주지회, 안보순례·전우 한마당 펼쳐

국가 유공자 단체인 월남전 참전지회 전주지회(지회장 김귀만) 회원 1백명은 9일 2022 안보 순례 및 전우 한마당 행사를 펼쳤다.

행사는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경남 거제시 6.25 포로 수용소 기념비 참배와 전시관 관람 등을 통해 안보교육 현장 답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안보현장 답사에서 회원들은 월남전에서 참혹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나서는 6.25와 같은 우리민족의 아픔을 겪어서는 안된다 고 다짐했다.

월남전참전지회 김귀만 전주지회장은 "오늘의 행사가 보훈의 달의 행사가 되어서 안된다"면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안보의식 고취는 물론 이에 전국민이 단결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임실군, 체육활동 증진 군민회관 야외운동기구 설치

임실군이 주민들의 체육활동을 높이기 위해 군민회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했다.

군민회관은 기존 실내체육 지원을 위한 체육관 운영을 해왔으며, 올해 4월부터는 종합경기장 내 다목적체육관으로 이전된 배드민턴을 제외한 배구, 농구, 피구 3개 종목은 운영하고 있다.

군은 실내체육 지원에만 안주하지 않고 주민들의 체육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자 3대의 복합야외운동기구(공중걷기·파도타기·상체근육운동·역기나리기/허리돌리기)를 야외운동장에 설치했다.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는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하루에 10분씩 사용하면 생활 건강에 도움이 되며 주변에 벤치도 설치되어 있어 운동 후 휴식을 병행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심 민 군수는 "군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주민의 요청에 귀 기울이며 시설개선과 확충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비전대, 삼성중공업 채용설명회 진행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상모)는 지난 8일 우정관 AI뉴테크실습실에서 삼성중공업 채용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삼성중공업 인사담당자를 초청해 근무형태 및 직무정보, 취업한 선배들의 노하우 및 멘토링 등 학생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전주비전대에 따르면 고용시장 분석과 변화하는 취업 트렌드를 수시로 분석해 학생들의 취업성공을 위한 맞춤형 취업반(대기업반, 공기업반, 공무원반, 국가고시반)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다.

정상모 총장은 "삼성중공업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과 협약을 통해 지역 우수 인력 양성 및 취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삼성중공업 현장견학에서 학생들의 '취업 몰입도'를 높이고 최종합격 할 때까지 전주비전대는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전주비전대는 2021년에 전문대 혁신사업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으며, 올해 5월에는 교육부의 IINC 3.0 사업에 선정돼 6년 간 120억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성과를 올렸다. /정은성 기자

일품장수흑염소, 장수 산서면에 양곡 기탁

장수군 산서면 일품장수흑염소대표 안용근이 9일 산서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달라며 양곡 10kg 34포를 기탁했다.

일품장수흑염소는 지난 2021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양곡을 기탁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안용근 대표는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관내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실천하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구선서 산서면장은 "매년 산서면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일품장수흑염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양곡은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등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아이들이 미래다... 행복한 우리학교’

전주시학교운영위원회회, 제25대 신원호 회장 선출

신원호 전주동중 운영위원장이 전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9일 전주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에서 전주시내 초·중·고교·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장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원호 위원장을 신임 회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전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관내 140개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전주시교육발전과 학교운영위원장들 간 유대강화를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조직·운영돼 왔으며, 교육에 관한 지역 여론을 모으는 통로 역할을 해왔다. 신임 신원호 회의회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신임 회의회장은 이날 '아이들이 미래다, 행복한 우리학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인성품 지원센터, 학교폭력 예방협의체 구성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위원회 신설 △등·하교 안전보험추진 △무상교복지원금에 체육복 포함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운영위원장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그는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



한 의사결정에 학부모와 교직원, 학생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민주성, 합리성, 효율성을 확보해 교육 3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북일초 운영위원장과 전북교육포럼 사무총장, 전주시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한 신원호 회의회장은 현재 전주시 학부모 연합회 운영위원과 일일선 인성본부 본부장 이따다운 교육공동체상 집행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대, 전주완산소방서와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는 9일 전주완산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의 대표 등 8명이 참석, 민·관·연계를 통한 소방지식과 기술을 교류함으로써 교육·훈련·지원의 효과적 활용 및 상호 기관 발전의 기반을 다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2022년 7월부터 4주 동안 전주대 보건관리학과 학생들은 소방서와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에서 재난종합체험, 위기탈출체험, 전문 응급처치 등 다양한 보건교육 실습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전주완산소방서와 함께 현장 연계 교육 및 취업 관련 실습 활동 교육 관련 각종 정보 교류 및 시설 활용, 교육 연구 및 발전, 지역사회연계 봉사활동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날 실습에 참여한 이현욱 학회장(보건관리학과 3년)은 "협약을 통해 소방서와 119안전체험관에서 실습을 하게 돼



기쁘다"며, "다양한 교육과 경험을 통해 보건교육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장수 서장은 "전주대학교와 맺은 협약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함께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순창군, 아동권리옹호·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나서

순창군이 아동권리옹호교육과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펼쳐 아동인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군은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4대권리와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진행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서 아동들의 좋은 반응에 따라 올해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상반기 캠페인은 지난 9일 순창중앙초등학교에서 아동권리옹호교육과 함께 진행됐다.

순창군,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순창경찰서, 순창군청 소년상담복지센터, 순창군가족센터 등 민·관·경 합동으로 아동권리옹호교육을 진행하고 아동 스스로가 아동학대 국민 감시단으로 참여할 것을 서약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일상생활 중 가장 많이 일어날 것 같은 학대로 참여아동의 55.9%가 정서학대를 꼽았다. 뒤이어 신체학대 39.6%, 방임 2.7%, 성학대 1.8%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 농어촌공, '농촌집 고쳐주기' 봉사 진행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양정희)는 지난 8일 농촌 취약계층의 낡은 주택을 방문해 "농촌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전북지역본부 직원들은 완주군 구이면의 한 노후주택을 방문해 낡은 싱크대와 보일러를 교체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공사를 진행했다.

해당 가구에 거주하는 농민은 "그 동안 어렵고 불편하게 살아왔는데 공사의 도움으로 집을 고쳐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덜게 되었다. 주위의 어려운 분들에게도 이런 혜택이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면서 고마움을 표했다.

양정희 본부장은 "농촌집 고쳐주기 활동을 통해 직원들과 함께 농촌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은 하루였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나눔축산, 호국보훈의 달 나눔행사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전북지부(지부장 김사중, 고창부안축협 조합장)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9일 전북동부보훈지청을 방문해 전북보훈대상 수상자에게 축산물을 전달하는 나눔축산운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오는 14일 전북보훈회관에서 열리는 제48회 전북보훈대상 시상식의 수상자에게 우리 축산물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가족을 예우하고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완 전북농협 부본부장, 최정길 전북동부보훈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보훈과 나눔축산운동에 대한 의미를 함께 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공로를 조성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키워주기 위해 축산인들의 정성을 담아 후원물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호국보훈 의식 고취와 애국정신을 선양하는데 다양한 나눔축산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반햇소영농조합, 무주군에 장학금 100만원 기탁

반햇소영농조합법인(대표 정병술)은 9일 무주군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금 100만 원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이날 무주군을 방문한 정병술 대표는 "무주지역 청소년들이 미래 무주발전을 이끌 주역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며 "이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보탠다"라고 말했다.

황인홍 군수(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이사장)는 "우리 무주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선뜻 장학금을 기탁해 매우 감사하다"라며 "경가침체 등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시기를 마음으로 응원하겠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반햇소영농조합법인은 정육식당 운영을 통해 양질의 한우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무주군 육류가공식품(소시지, 떡갈비 등)을 생산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

반햇소영농조합법인은 무주를 농공단지에 위치해 육류가공 제조 체질정비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경제발전에 도 이바지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전 전북본부, 전기사랑 어린이 그리기 대회 성료

한전 전북본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8일 전주시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깨끗한 전기, 안전한 전기, 고마운 전기'라는 주제로 2022년 전기사랑 어린이 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

전기의 가치와 소중함을 가르쳐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어린이 그리기 대회에는 전주시 초등학교생 400여 명이 참가해, 이중 총 122명이 대상·최우수·우수상 및 참가상의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또한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 본인이 그린 그림을 개별 인쇄된 감사서한문과 기념품을 발송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전북본부는 수상작의 그림을 본부사무 1층 로비에 전시하고,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의 어린이들을 초청해 상장과 상금을 전달했다.

한전 전북본부는 앞으로도 전기의 가치를 홍보하고 회사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우석대, 완주군가족센터와 상생협력 '맞손'

우석대학교 이등사회복지학부는 9일 완주군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종합관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박경순 이등사회복지학부장과 김정은 완주군가족센터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적·물적 지원의 상호 교류 및 지원 △교육과정 협의 및 실무 교류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협력 △각종 기획 및 프로젝트 공동참여 △양 기관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행사 협력 등이다.

박경순 학부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학생들에게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어 양 기관 모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부는 아동·가족·사회복지 관련 전문지식과 실천기술을 학생들의 현장중심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